

##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1.1~11.4)

### 1. 한일 정상 환담(11.4) 관련

#### □ [동향]<sup>1)</sup>

- 한일 양국 정상은 아세안+3 정상회담 장소인 태국 노보텔 방콕 임팩트의 정상 대기장에서 약 11분간 단독 환담을 실시
- o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환담은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었음.
-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하고, 양국 간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양국의 외교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양국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희망
- 한국 측은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일본 측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응답

#### □ [일본 정부 동향]

-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 측 입장을 전달<sup>2)</sup>
- o 아베 총리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된 원칙을 우리가 바꾸는 일은 없다” 라고 단언한 후에, “대화는 지속하자” 라고 전달했다고 NHK가 보도<sup>3)</sup>

### 2.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결과 관련

#### □ [동향]<sup>4)</sup>

---

1) 「文 대통령-아베, 11분 단독환담...“실질 관계진전 방안 도출 희망”」 『연합뉴스』 (2019. 11. 4).  
2) 「安倍首相 ムン大統領に「徴用」めぐる問題 解決済みと伝える」 『NHK NEWS WEB』 (2019. 11. 4).  
3) 「安倍首相とムン大統領 やり取り詳細」 『NHK NEWS WEB』 (2019. 11. 4).  
4) 「日韓議連、首脳会談開催促す 共同声明「両国間の葛藤、深い憂慮」」 『朝日新聞』 (2019. 11. 2). 및 「日韓

- 한일 양국의 의원연맹은 1일 합동총회를 개최, 한일 양국이 조기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
- o 공동성명에서는 강제징용, GISOMIA 등의 문제로 “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진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
- o 또한 1998년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제창한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정신에 되돌아가야 한다고도 지적
- 한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양국 기업이 출자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두고 가와무라(河村) 간사장은 한일 양국 기업이 출자하는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을 창설하는 방안을 선택지로 언급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동선언문에도 반영되지 못함.<sup>5)</sup>
- o 이 방안은 강제징용 배상과 분리하여, 에너지 분야 등에 양국 기업이 자금을 각각 출자하는 것을 골자로 함.
- o 단, 일본 외무성은 일본 기업에게 부담이 발생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
- 또한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타개책을 찾지 못한 상황<sup>6)</sup>

### 3. 한일 국무장관 회담 관련

□ [동향]<sup>7)</sup>

- 한일 양국 정부는 11월 중순 국방장관 간 개별회담을 태국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중
- o 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 정세, 지소미아 종료 등에 협의할 것으로 전망됨.

兩議連：日韓議連「早期に首脳会談を」 『毎日新聞』(2019. 11. 2).

5) 「日韓対立、歩み寄り探る、両国議員連盟が合同総会、基金設立案浮上も難路。」 『日本経済新聞』(2019. 11. 2)

6) 「日韓議員 首脳会談促す 合同総会 徴用工など平行線」 『産経新聞』(2019. 11. 2).

7) 「日韓防衛相 会談へ 今月中旬 河野氏就任後初」 『産経新聞』(2019. 11. 4).